

일개 간호대학 학생의 정치참여 영향요인 분석 :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

김지현

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College of Nursing :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e

Ji Hyun, Kim

Kunsan College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in a college of nursing. **Methods** : A total of 336 participants were survey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3.0 program. **Results** : The mean score on political efficacy was 32.19 ± 5.62 . Political participa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olitical interest ($r = .55, p < .001$), political efficacy ($r = .38, p < .001$) and media usage ($r = .22, p = .020$). The variables explain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by 30.0%. **Conclusion** :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the use of media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through subjective perception change by implementing policies to actively utilize these factors.

Key words : Politics, Communications media, Nursing students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치 참여는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전달되는 수단으로 정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정부 인사의 선정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1]. 즉,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권을 선택하고, 정부의 구조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시민의 행동이다[2].

우리나라의 정치참여는 개인의 소외와 무관심, 공

동체 관념의 약화, 정부의 관료적 경직성의 증가로 위기를 맞고 있다[3].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 혹은 저조한 정치 참여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분석 결과[4]는 국내 젊은 층의 투표율 저하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 현상은 이들의 정치적 태도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시급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관심도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평소에도 자주 나누며, 여러 정치행위에 참가하고, 정치 관련 지식도 많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 정치에 관심을 많이 보일수록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숙련되고 수준 높은 정치적 결정에 이를 수 있다[6]. 최근 대학생들의 정치관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효능감 및 정치관심도가 향상되었고, 간접적이지만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

정치효능감은 “한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감정[7]” 혹은 “공공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감정[8]”으로 정의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효능감은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은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 참여를 통해 무엇인가를 움직이며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신념을 나타내고,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은 정치기구 및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3]. 대체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정치효능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특히 매체(Media)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이슈에 관심 없는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기성세대와는 다를 수 있다[9]. 그러나 이런 매체의 이용이 모두의 정치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결국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기술적인 가능성만이 아니라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인지적·심리적 요인이 함께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3]. 또한 국민들에게 의료부문에서의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정책을 알리고 여론을 만드는 데에는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의료관련 정책은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하며, 근거와 기준이 합리적으로 제공되어야하므로 다른 어떤 정책 분야보다 매체의 역할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10].

간호대학생은 보건의료제공 현장에서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는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조직에 들어가고자 준비하는 예비간호사이다[11]. 간호조직은 매우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정치에 대한 참여와 정치적 역량은 그다지 높지 않다[12]. 간호사는 국민건강에 대한 간호의 관점을 정치참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보건의료문제를 직,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질 높은 간호서비스와 전문직 간호를 향상하고, 간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올바르게 인식해야한다[13]. 미래의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일익을 담당하려는 실천적 옹호자로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배움의 과정에 있다. 또한 향후 환자에게 보건의료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간호사가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질적인 간호제공을 위한 자원을 받지 못하거나 정책 결정자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반면에, 간호사가 정치에 참여할 경우 전문직 간호사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이슈에서 전문인으로서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정치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여성[15], 사회복지사[16,17], 대학생[5,6]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고, 매체 이용[18,19,20]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11,12]는 미약하며, 국외연구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하는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3,14]. 따라서 현 간호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는 미래의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과 정치참여의 상관성 분석을 통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 정도와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 정치참여 정도의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에 따른 정치참여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성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북 G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34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가운데 회수되지 않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총 336부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설문 시작 전 신분을 밝히고,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에게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여를 허락한 학생에게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참여에 동의를 얻었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종료와 동시에 폐기됨을 고지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후에는 밀봉된 설문지 수거함을 활용하여 수거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평균 15분 가량 소요되었다. 참여자에게는 약 2,000원 상당의 문구로 소정의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4. 연구도구

1) 정치관심도(political interest)

정치관심도는 Shin과 Yang[20]의 방법에 대해 Shin[18]이 재편성한 문항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정치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Shin[18]의 연구에서는 .83였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

정치효능감 측정도구는 Nam과 Huh[19]의 도구를 Shin[18]이 재구성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으로 하부영역으로는 내재적 정치효능감 6문항과 외재적 정치효능감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척도로 5점부터 1점까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정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내재적 효능감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였고, 외재적 효능감 Cronbach’s α 는 .79였으며, Shin[18]의 연구에서 내재적 효능감과 외재적 효능감의 Cronbach’s α 는 각각 .83과

.82였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효능감 Cronbach's α 는 .82이었고, 외재적 효능감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3) 매체 이용(media usage)

본 연구에서 매체 이용에 대한 측정 도구는 Shin[18]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척도로 5점부터 1점까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매체 이용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4)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본 연구에서 정치참여 측정도구는 Nam과 Huh[19]의 도구를 Shin[18]이 재편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하부영역으로는 소극적 정치참여 4문항과 적극적 정치참여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척도로 5점에서 1점까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정치참여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Shin[18]의 연구에서 소극적 정치참여와 적극적 정치참여의 Cronbach's α 는 각각 .83과 .69였다. 본 연구에서 소극적 정치참여 Cronbach's α 는 .83이며, 적극적 정치참여 Cronbach's α 는 .85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서술통계로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 정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Table 1. Political Participation acco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N=3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pm SD	t or F	p	Scheffé
Gender	M	19(5.7)	3.95 \pm 0.50	1.69	.169	
	F	317(94.3)	3.53 \pm 0.55			
Age(year)	20~21	57(19.0)	3.81 \pm 0.55	2.55	.824	
	22~23	212(63.1)	3.58 \pm 0.52			
	\geq 24	67(19.9)	3.24 \pm 0.36			
Grade	Freshman	69(20.5)	3.57 \pm 0.56	1.67	.174	
	Sophomore	79(23.5)	3.44 \pm 0.52			
	Junior	93(27.7)	3.55 \pm 0.58			
	Senior	95(28.3)	3.63 \pm 0.53			
Religion	Protestant	80(23.8)	3.61 \pm 0.53	2.60	.108	
	Catholic	40(11.9)	3.58 \pm 0.50			
	Buddhism	21(6.3)	3.51 \pm 0.59			
	None	195(58.0)	2.44 \pm 0.63			
Circle activity	Yes ^a	85(25.3)	3.82 \pm 0.64	3.79	<.001	a>b
	No ^b	251(74.7)	3.29 \pm 0.5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58(47.0)	3.72 \pm 0.46	16.13	.144	
	Average	174(51.8)	3.41 \pm 0.58			
	Bad	4(1.2)	3.04 \pm 0.48			
Dwelling type	Home	106(31.5)	3.47 \pm 0.51	0.49	.487	
	Dormitory	149(44.3)	3.61 \pm 0.56			
	Rented room	81(24.2)	3.57 \pm 0.59			

검정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계산하였다.

대상자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과 정치참여도와 상관계수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대상자를 전북 G시 일개 간호대학의 1~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확대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94.3%이었으며, 연령은 22~23세가 63.1%로 가장 많았다. 학

년은 4학년이 28.3%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27.7%, 2학년이 23.5%, 1학년이 20.5%의 순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58.0%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25.3%였고,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74.7%이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기숙사가 44.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정치참여도

대상자의 정치관심도는 평균 9.22점, 평균평점 3.07점이었으며, 정치효능감은 평균 32.19점, 평균평점 2.92점이었고, 대상자의 총 매체 이용정도는 평균 18.02점, 평균평점 3.60이었다. 정치참여도는 평균 21.43점, 평균평점 2.14점이었다. 이를 구체적인 하위영역으로 살펴보면, 정치참여 정도에서 소극적 참여 정도는 평균평점 3.15점, 적극적 참여 정도는 평균평점 2.53점이었으며, 정치효능감에서 내재적 효능감은 평균평점 2.87점, 외재적 효능감은 평균평점 3.53점이었다. 매체 이용정도에서 TV 뉴스는 평균평점 4.03점, 신문은 평균평점 3.02점, 인터넷은 평균평점 3.98점, SNS는 평균평점 3.25점이었으며, 팟캐스트는 평균평점 2.75점이었다(Table 2).

Table 2. Level of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Media Usag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N=336)

Variables	Items	Mean±SD	Min~Max	Mean point±SD	Range
Political interest	3	9.22±3.62	3~15	3.07±0.82	1~5
Political efficacy	11	32.19±5.62	15~53	2.92±0.50	1~5
Internal efficacy	6	17.23±3.45	6~28	2.87±0.72	1~5
External efficacy	5	17.67±4.20	5~25	3.53±0.76	1~5
Total media usage	5	18.02±4.23	15~24	3.60±0.12	1~5
TV news	1	4.03±0.23	1~5	4.03±0.23	1~5
Newspaper	1	3.02±1.02	1~5	3.02±1.02	1~5
Internet	1	3.98±0.96	1~5	3.98±0.96	1~5
SNS	1	3.25±1.01	1~5	3.25±1.01	1~5
Pod cast	1	2.75±1.08	1~5	2.75±1.08	1~5
Political participation	10	21.43±5.51	11~43	2.14±0.55	1~5
Passive participation	4	12.62±1.39	4~16	3.15±0.68	1~5
Active participation	6	15.19±4.02	7~27	2.53±0.31	1~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정치참여도는 동아리 활동 유무($t=3.79$, $p<.0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보다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4. 대상자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정치참여도와와의 관계

대상자의 정치관심도와 정치참여도의 관계는 중간 정도 양의 상관관계($r=.55$, $p<.001$)로,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도는 중간 정도 양의 상관관계($r=.38$, $p<.001$)로, 총 매체 이용과 정치참여도는 미약한 양의 상관관계($r=.22$, $p=.02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Media Usag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N=336$)

Variables	Political Participation	
	r	p
Political interest	.55	<.001
Political efficacy	.38	<.001
Internal efficacy	.28	<.001
External efficacy	.32	<.001
Total media usage	.22	.020
TV news	.22	.015
Newspaper	.12	.188
Internet	.20	.460
SNS	.19	.002
Pod cast	.14	.01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의 정치효능감 가운데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도의 관계는 미약한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r=.28$, $p<.001$), 외재적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도의 관계는 중간 정도 양의 상관관계($r=.32$, $p<.001$)로 나타났다(Table 3).

5.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치참여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동아리 활동 유무를 포함하였는데 동아리 활동 유무는 더미화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2.18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 모형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IF)는 1.01~1.81에 분포되어 있고, 공차한계 값은 0.86~0.96으로 그 값이 1.0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이었으며, 이들 요인이 정치참여도를 3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대해 가장 예측력이 높은 요인은 정치관심도($\beta=.41$)로 정치참여의 24%를 설명하였고, 정치효능감($\beta=.34$)은 2%를, 매체 이용($\beta=.28$)과 동아리 활동($\beta=-.16$)은 각각 2%를 설명하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N=336$)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R	Adjusted R^2	t	p
Political interest	1.81	.13	.41	.50	.24	7.75	<.001
Political efficacy	.49	.04	.34	.52	.26	5.42	<.001
Media usage	.18	.06	.28	.56	.28	4.69	.002
Circle activity	-1.35	.39	-.16	.55	.30	-2.35	.005

IV. 논 의

본 연구는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이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정치관심도는 평균 3.07점(5점 만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일 지역 대학생의 평균 2.14점[19]보다는 높았고, 같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un 등[11]의 연구결과인 2.92점보다 높게 나타나서 차이가 있었다. 정치관심도는 정치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측정 도구가 다양하여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치 관심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정치효능감은 평균 2.92점(5점 만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전공학생의 평균 3.57점[1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정책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책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17], 사회복지전공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조금 더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적으로 내재적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효과성 혹은 자신감을 반영하는데 5점 만점에 평균 2.87점이었고, 외재적 효능감은 정치기구 및 정부관료들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는데 5점 만점에 평균 3.53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 지역 대학생의 내재적 효능감 평균 2.48점보다는 높았고, 외재적 효능감 평균 3.58점[18]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아 정치기구와 정부에 대해 알고,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내재적 효능감이 권위 있는 정치의 주체들이 시민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외재적 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최근 간호단체의 가입방식과 간호계의 쟁점화된 여러 이슈로 인해 간호대학생이 보건의료정책결정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념인

정치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간호단체의 가입 독려와 정치활동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정치 정보 및 사회적 문제들과 연관된 정보를 얻는 매체 이용은 TV 뉴스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터넷, SNS, 신문, 팟캐스트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i[21]의 일 지역 대학생의 매체 이용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 SNS, 팟캐스트 같은 매체들은 정치적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졌고, 젊은 세대는 이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문제를 이슈화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20]. 요즘 젊은 세대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고 하지만 투표권 행사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져서 대학생들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5]. 이는 선거에서 후보의 당락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더욱이 기성세대와 달리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연이나 지연 등에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태로서 젊은 세대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정치의 흐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체 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도는 평균 2.14점(5점 만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의료 시설과 교육기관의 간호사의 정치참여[13] 정도평균 2.36점과 비슷했고, Jun 등[11]의 연구에서 B광역시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 정도는 평균 3.24점(5점 만점)보다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Jun 등[11]의 대상자는 6.4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선거에 민감한 시점이었으므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는 온라인 서명활동, 모금활동, 인터넷 사이트 방문의 소극적 참여(3.15점)가 시민단체 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정당가입, 선거활동과 다가오는 선거에 투표할 의향의 적극적 참여(2.53점)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 등[12]의 연구에서 적극적 참여(2.68점)가 소극적 참여(1.84점)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상반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교대근무 등으로 시간이 부족한 간호사는 오프라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많은데 비해 간

호대학생은 오히려 온라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명활동,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이용한 정보 및 정책 교류 등의 소극적 참여방법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의 이용이 정치참여 정도를 30% 설명하였고, 그 중 정치관심도가 가장 예측력이 높았다. 이는 Jun 등 [11]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예측력이 높은 요인은 정치관심도이고, 정치참여도를 34.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의 이용이 정치참여 정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매체 활용을 통해 정치나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참여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치효능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이 정치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도는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높으며,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TV 뉴스와 SNS의 매체 이용이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정치관심도($\beta=.41$)가 정치참여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여기에 정치효능감, TV 뉴스, SNS의 매체 이용이 함께 포함되었을 때 정치참여를 30%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는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TV 뉴스 및 SNS와 같은 매체 이용이 많을수록 정치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려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전북 G시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타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 정책과 관련된 여러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References

1. Verba S, Schlozman KL, Brady H.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2. Oh DY. Learning effects of political video use in youtube on political socialization: focusing on political efficacy, intere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18;24(1):97-115.
3. Chung HJ, Kim SY.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of social welfare and SNS(social network service) use 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2;17(1):153-172.
4.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istorical Election Information [Internet]. Gwacheon: 2006, 2008, 2010, 2013[cited 2018 November 19]. Available from: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5. Hong SJ. The influence of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ideology and Information searching goal on political information search: with wome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9. p.1-77.
6. Yang Y, Hong SJ. The effect of political interest, ideology, and searching goal on political information search: with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0;16(3):289-310.

7. Campbell A, Gurin G, Miller WE. Political issues and the vote: novembe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52;47(2):359-385.
8. Milbrath LW, Goel ML. *Political participation*. Chicago Rand McNally. 1977;8(2):309-311.
9. Lee HJ, Cho AM.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socializa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7;24(8):247-272.
10. Sohn SH, Lee GO, Lee SY. Comparativ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frames of news articles on health-care: differences from administration changes and media's ideological orient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14;58(1): 306-330.
11. Jun SY, Ko IS, Lee JH. Influencing factors of SNS usage,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students of university. *Health and Social Science*. 2015;38:69-93.
12. Jun SY, Ko IS, Bae KR.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as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 20(3):342-352.
13. Vandenhouten CL, Malaker CL, Kubsch S, Block DE, Gallagher-Lepak S.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gistered nurses.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2011;12(3):159-167.
14. Boswell C, Cannon S, Miller J. Nurses' political involvement: responsibility versus privileg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05;21(1):5-8.
15. Kim HJ. A study on political strengthening of women on the basis of political participation. *Women's Studies Review*. 2008;25:101-138.
16. Kim KY. The Study about social worker'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state and an influenced factor [mater's thesis].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2004. p.1-83.
17. Choi HJ, Lee TS, Hong YJ, Kim HY. What would explain social workers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015;47:185-211.
18. Shin JS.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media use among college students on their political efficacy and participation-focusing on the 19th general election [master's thesis].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2. p.1-121.
19. Nam IY, Huh IS. Adolescents' and university students'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y using media.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2012;24:5-35.
20. Shin DU, Yang H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media properties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communication of voter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2010; 13(2):137-159.
21. Choi JH. The influence of SNS use o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012;27:369-408.